

조선시대 외교현장의 『詩經』 활용 고찰*

정원호**

【목 차】

1. 들어가며
2. 조선시대 외교 양상
 - 1) 조선과 野人 · 倭人の 관계
 - 2) 조선과 明 · 淸의 관계
3. 외교현장에 활용된 『詩經』 양상
 - 1) 조선과 野人 · 倭人の 외교에 활용된 『詩經』
 - 2) 조선과 明 · 淸의 외교에 활용된 『詩經』
4. 나오며

1. 들어가며

조선의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는 ‘事大交隣’이라는 말로 규정되곤 하였다. 즉 明에 대하여는 誠으로써 사대외교를, 日本과 女眞 등에 대하여는 信으로써 교린외교를 펼쳐 가는 것이 조선의 事大交隣정책이었다.¹⁾ 조선의 입장에서 ‘事大’란 국력과 문화의 차이가 나는 중국에 대해 朝貢과 冊封을 통해 上國으로 섬기면서도 자국의 내정간섭을 최소화하며 외교적 분란의 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²⁾ 한편으로는 使行 등을 통해 서적이나 약기 등의 문물이 중국으로부터 전파됨으로 인하여 조선의 문화적 배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³⁾ ‘交隣’은 조선 주변의 여러 나라들 중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피책봉국들 즉 日本 · 琉球 · 女眞 등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말한다.⁴⁾ 그러나 조선은 交隣을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의과학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과학대학교 관광중국어전공 조교수 (whjung@dit.ac.kr)

1) 김성근(2008), 『朝·淸 외교관계 변화연구 : 朝貢·冊封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

2) 김경록(2006), 「조선시대 事大文書の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Vol.134, p.38 참조.

3) 전해중(1996), 「韓中朝貢關係考」, 『東洋史學研究』 제1집, p.36 참조.

4) 심민정(2010), 「제4장 조선 전기 對日 交隣體制」, 『민족사상』 Vol.4, p.135 참조.

맺고있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표면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면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방면에서 上國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조선의 ‘事大交隣’과 관련된 외교관계에 대한 사계의 접근은 관련 학계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다.⁵⁾ 본고에서는 사계의 축적된 외교 관련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文教가 갖추어져있는 유교주의 국가이념을 표방하고 나선 조선이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유교의 경전인 『詩經』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詩經』은 孔子가 나라의 외교에 있어서 詩三百篇의 효능에 대해서 강조하고 난 후 각국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⁶⁾ 필자는 지난 줄고에서 조선의 외교와 관련된 『詩經』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선과 중국 간에 전달된 외교문서와 사신접대에 따른 직접적 외교 행위와 관련되어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⁷⁾ 본고에서는 중국 이외에 조선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행위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는 『詩經』과 같은 고전 경서를 조선이 문화적 上國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통해 조선이 점하고 있는 유교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먼저 野人·倭人 등과 맺고 있는 교린외교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본 연후에 조선과 중국 간의 사대적 관계를 띠고 있는 외교 관계를 다루고자 하며, 특히 明·淸간의 왕조 변화에 따른 조선의 사대외교에 어떠한 변화적 추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선의 외교현장과 관련된 『詩經』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野人·倭人 등과의 외교적 관계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 연후, 중국의 明·淸간의 왕조 교체에 따른 『詩經』의 역할을 통해 두 왕조를 바라보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내면적 의식의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후대에 실리 외교보다는 명분 외교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선의 외교적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野人·倭人 등과의 외교적 관계에 쓰인 『詩經』의 역할에 대한 고찰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조선의 외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유교적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조선의 외교가 『詩經』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지에 대해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사대교린 외교를 통해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유교주의 문화의 자부심을 관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野人’이라는 용어는 『實錄』⁸⁾에 등장하는 북방의 제 부족 중에서도 주로 ‘女眞’과 관련된 내용이며, 倭人은 ‘日本’을 가리키며 특히 ‘對馬島’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

5) 정다함(2011), 「‘事大’와 ‘交隣’과 ‘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韓國史學報』 Vol.42

정다함(2010), 「조선의 “조공국” 만들기 : 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 중심의 동북아 질서의 사이에서」,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5

崔韶子(1975), 「胡亂과 朝鮮의 對明·淸關係의 變遷: 事大·交隣의 問題를 中心으로」, 『梨大史苑』 Vol.12

6) “詩三百篇을 외우고도 政事를 맡기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四方에 사신으로 나가서는 잘 應對하지 못하면 많이 외운다 한들 무엇하겠는가!(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論語·子路』: 정원호, 박사논문, p.2 참조.

7) 정원호(2014), 「조선시대 對중국 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 고찰」, 『中文學』 제49집.

8)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해 『朝鮮王朝實錄』을 『實錄』이라 약칭하기로 한다.

다.

자료의 활용은 조선의 전체 역사가 수록되어 있는 『朝鮮王朝實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⁹⁾ 『詩經』의 번역과 그에 따른 주석은 朱熹의 『詩集傳』을 따르기로 한다.¹⁰⁾ 이는 주자의 해석이 조선과 중국의 관학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 조선시대 외교 양상

본 장에서는 淸의 前身이 되는 북방 野人이었던 ‘女眞’의 조선에 대한 관계를 먼저 서술하고, 아울러 주로 임란 전까지 조선에 藩邦으로서 교린관계를 맺어오던 왜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의 중국과 “人臣無外交”에 기반한 事大외교에 관한 연구는 줄고에서 이미 고찰한 바가 있다.¹¹⁾ 본고에서는 明 · 淸 교체기에 따른 조선의 외교적 추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과 野人 · 倭人の 관계

『實錄』에서 野人으로의 지칭은 서북방 변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부족을 일컫는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淸의 前身이 되는 ‘女眞’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女眞은 長白山과 黑龍江 사이를 터전으로 하는 수렵민족으로서, 15세기에는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半農 · 半狩獵의 상태에 있었고, 식량 · 의류 같은 생활필수품이나 농기구 같은 생산도구가 결핍되었다. 따라서 여진은 말, 모피, 인삼 등을 가지고 중국, 조선 등 주변 지역과의 朝貢 또는 교역을 통해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했고, 자연재해 · 전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시에는 약탈도 서슴지 않았다.¹²⁾

女眞은 후일 누르하치에 의해 통일되기 전까지는 요동에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면서 경제 · 문화적인 면에서 明이나 조선에 비해 크게 뒤져 있었다. 조선은 일찍 1404년(태종4)에 후일 청의 직계조상인 童猛哥帖木兒와 그 從者가 入朝하였을 때 上護軍, 大護軍, 護軍, 司直, 副司直, 司正 등의 관직을 준 적이 있으며, 또한 例賜 혹은 賞賜라 하여 상경 여진인 전원에게 爵秩의 고하와 부족의 강약에 따라 의복과 잡물을 사급하였다. 賞賜 외에도 특이 遠方에서 입조하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여진인에게 특별 賜給을 지급하기도 하였다.¹³⁾ 여진에 대해 이와 같은 회유책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다.

世宗 11월 記事를 보면 세종은 상기 婆猪江 정벌 때 조정 신료들이 모두 불가하다는 것을

9) 본 장에 인용된 『朝鮮王朝實錄』의 記事文에 관한 번역은 기본적으로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의 번역을 근간으로 하여 재번역을 가하였음을 밝혀둔다.

10) 朱熹, 『詩集傳』, 臺北:中華書局, 民國71(1982)

11) 정원호, 상기 논문.

12) 박원호(1995),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15세기 동아시아 정세」, 『한국사』 Vol.22(국사편찬위원회), pp.283-284 참조. 김성근, p.26 재인용.

13) 김성근, pp.27-30 참조.

무릅쓰고 본인이 정벌을 命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지금 童猛哥帖木兒 父子가 일시에 사망한 것은 하늘이 멸망시킨 것과 같다[予意以爲童猛哥帖木兒父子, 一時而亡, 若天亡之也.]라고 하며, 그의 무리들이 조선의 境內에 와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 可否간의 논의를 하는 내용이 보인다.¹⁴⁾

이를 비추어보면 조선은 그 당시 女眞에 대해 ‘交隣’의 상대보다는 征伐 혹은 藩邦의 대상으로 여기고 일종의 ‘事大’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즉 지배 세력까지 제거함으로써 그들을 수평적 우호 선린의 선상에 두기보다는 조선을 上國으로 섬기고 복종하며 살기를 강요하는 외교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成宗 22년 북방 정벌의 擧事에 관한 記事를 보면 “어리석은 이 북쪽 오랑캐가 스스로 헤아리지도 않고 침범하여 큰 나라를 업신여겨서 별과 전갈의 독을 함부로 뿌리고 승냥이와 이리의 심보를 멋대로 부려서, 분쟁도 없었는데 우리 땅을 침범하여 將卒을 죽였으니, 이것이 어찌 天心의 즐거하는 바이며 王法의 토벌하지 않는바 되겠는가?”¹⁶⁾라고 하여 북방 野人에 대해 ‘별’, ‘전갈’, ‘승냥이’, ‘이리’ 등의 인간에게 해로운 대상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심리 작용도 정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조선은 북방 野人에 대해 스스로를 ‘큰 나라’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조선이 중국을 上國으로 섬기며 ‘事大’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女眞 등의 제 부족에게 조선 역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정벌을 하려하는 조선의 행위에 대해서는 ‘天心’과 ‘王法’의 대의적 명분을 동원하여 정당화시켰다.

이후 여진은 建州左衛 都指揮使였던 猛哥帖木兒의 6대손임을 자처한 누르하치가 요동의 女眞 제부를 통일하여 국가의 규모를 갖추어 갔으며, 조선은 누르하치세력이 급성장하자 누르하치의 정세를 정탐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갔다. 1605년(선조 38) 11월에 누르하치는 처음으로 조선에 국서를 보내어 조선과 누르하치 간에 최초로 국서가 왕래되었는데, 이는 조선의 후금에 대한 외교방향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¹⁷⁾ 1616년 누르하치가 後金을 건국하면서 조선과 부족 형태의 野人 관계도 사라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조선과 왜인과의 외교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은 초기 왜인들에 대해 對馬島 정벌과 같은 강경한 군사적 정벌 이외에 피책봉국에게 내릴 수 있는 관직하사와 같은 강온 정책을 겸행하였다.¹⁸⁾

太祖 6년 倭人들에게 司正과 副司正職을 제수하하고 衣冠을 하사하고,¹⁹⁾ 定宗 1년 항복한 倭人에게 司直 이하의 職을 주고, 계급이 宣略인 자는 銀帶를 주었으며,²⁰⁾ 世宗 8년에 귀화

14) 『世宗實錄』 15년(1433) 11월 19일 1번째 記事.

15) 정다함, 「‘事大’와 ‘交隣’과 ‘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p.306 참조.

16) “蠹茲北虜, 匪茹入寇, 侮慢大國, 肆行蜂蠆之毒, 極逞豺狼之志, 無釁犯我, 屠將戮卒, 此豈天心之所樂、王法之不誅者耶?” 『成宗實錄』 22년(1491) 5월 11일 1번째 記事.

17) 김성근, p.38.

18) 김보한(2014),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禁寇)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Vol.47, pp.24-25 참조.

19) “授倭萬戶羅可溫子都時老司正、昆時羅·望沙門副司正職, 仍賜衣冠。” 『太祖實錄』 6년(1397) 2월 10일 1번째 記事.

20) “授降倭司直以下之職。階宣略者, 賜銀帶。” 『定宗實錄』 1년(1399) 11월 30일 2번째 記事.

한 倭人인 副司直 池文에게 의복과 쌀 등을 내리기도 하였다.²¹⁾

中宗 4년²²⁾倭奴 문제를 걱정하며 대비책을 제시하는 상소에 실린 記事에 보면 祖宗조 이래로 齊浦 · 釜山浦 · 鹽浦에 거주를 허락한 倭人들이 60戶數가 되는데 그 형세가 약하고 유순하며, 스스로 신하라 칭하고 조공을 바쳐와[稱臣奉貢], 조선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와 戶數도 불어나고 변방의 백성들을 해치며 민가를 불사르고 백성들의 재물을 겁탈하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稱臣奉貢]이라 함은 조선이 명나라에게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이 중국에게 ‘人臣無外交’의 정책과 관련하여 倭人과 외교를 벌인다는 혐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實錄』에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²³⁾ 이러한 내용이 『實錄』에 기재된다는 것은 ‘事大’와 ‘交隣’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이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은 明에 藩邦의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倭人를 자신의 藩邦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中宗 5년 경기 · 충청 · 강원도 관찰사에게 군사를 일으켜 왜적을 치라는 敎書에 “어리석은 이 완악한 오랑캐가 우리 祖宗 때부터 우리 강토에 머리의 이[齒]처럼 의탁하여 우리의 農桑으로 입고 먹었는데, 처음에는 투항하여 우리의 돌보아 길러주는 은혜를 우러러보더니, 마침내는 만연히 창궐하여 승냥이와 호랑이의 흉한 짓을 자행하였다.”²⁴⁾라는 내용이 나온다. 記事에서 보면 왜인이 오래전부터 조선에 기탁하여 생존하였으며, 조선은 이들의 생계에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 이는 초기 왜인과의 交隣관계는 상술한 野人들의 관계처럼 조선이 이들에게는 父兄과도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조선이 이들 倭人을 바라보는 시각은 野人과 마찬가지로 ‘이[齒]’, ‘승냥이’, ‘호랑이’와 같은 하찮고 부정적인 이미지이며, 조선은 상대적으로 ‘神人’과 같은 존재로 승화시켜 놓았다. 이와 같은 표현은 상호 물질적인 국력 차이 이외에 문화적 차이 또한 월등한 지경에 놓여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中宗 5년 조선과 倭奴의 관계에 대한 記事²⁵⁾에서는 倭奴를 오랑캐라 하여 차별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선대부터 조선에 정성을 바쳐왔기 때문에, 조선이 호의를 베풀어 조선의 강토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등 조선은 倭奴에 대해 부모처럼 양육의 은혜를 베풀었으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倭奴에 대해서는 ‘禍를 즐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존재’ ‘탐욕스런 ‘짐승’으로, 조선에 대해서는 팔뚝을 걷어붙이는 ‘志士’와 탄식하는 ‘仁人’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시기까지도 조선의 왜인에 대한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交隣관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事大에 가까운 외교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해 유교의 정신문화에 대한 절대 우월성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向化倭人副司直池文……命給暇，仍賜衣二領、笠靴酒米。” 『世宗實錄』 8년(1426) 2월 9일 6번째 記事.

22) 『中宗實錄』 4년(1509) 3월 24일 2번째 記事.

23) 贊成許稠對曰“倭客在後，則必有憤心，中國聞之，恐有外交之嫌。” 『世宗實錄』 13년(1431) 1월 21일 2번째 記事. 정원호, 상기 논문, 140쪽 재인용.

24) “蠹茲頑夷，自我祖宗，蠹托我境土，衣食我農桑。始投化而來降，仰我撫育之惠，終蔓延而猖獗，輒肆豺虎之凶” 『中宗實錄』 5년(1510) 4월 16일 6번째 記事.

25) “蕞爾倭奴，邈在海島，自其先輸誠而納款，惟我國一視而同仁，居處于我疆，衣食於我好。人怒獸貪，求索萬端，樂禍輕生，驕傲比甚。志士扼腕而言兵，仁人歎息而共憤。” 『中宗實錄』 5년(1510) 4월 19일 1번째 記事.

이후 宣祖代의 壬亂을 거친 이후부터 조선과 왜인의 관계는 더 이상 조선이 그들에게 上國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고에서 다룰 예정인 조선과 野人·倭人の 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범위는 조선의 宣祖代를 넘어가지 않는다.

2) 조선과 明·淸의 관계

조선이 중국과 “人臣無外交”에 기반한 事大主義 외교를 전개하였다는 연구는 줄고에서 이미 진행한 바가 있다.²⁶⁾ 본고에서는 明·淸의 왕조 교체기에 따른 조선의 외교적 추이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16세기 말 壬亂은 明에 대해 지금까지 펼쳐왔던 조선의 사대외교를 내면적으로 더욱 심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野人으로 떠돌던 女眞이 後金으로, 淸으로 변해가는 과도기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後金의 급성장을 파악하고 明에 대한 일방적 사대외교 보다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실리외교를 펼쳐나갔다.

1623년 발생한 仁祖反正에 대해 후금과 대립하고 있던 명에게는 큰 과문으로서 찬탈행위로 규정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었지만, 인조정권이 再造之恩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후금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조선을 회유해야 하는 명으로서는 인조의 책봉을 승인하게끔 되었다.²⁷⁾ 인조정권의 탄생과 맞물려 명에 대한 사대외교가 더욱 깊어진 조선에게 1627년 벌어진 丁卯胡亂은 수평적 교린관계 내지는 조선의 藩邦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女眞에게 형제의 관계를 맺게 했다. 이 당시 조선이 명에 후금과의 불가피한 화친관계의 사정을 아뢰는 奏文의 내용을 보면 “事大와 交隣에는 각기 그 도리가 있는 것이니, 지금 귀국과 화친하는 것은 交隣이고 명나라를 섬기는 것은 事大로 이 두 가지는 병행해도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父子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나라의 存亡이 위급하다 하여 臣下의 절개를 바꿀 수 있겠는가. …… 저 적은 본래 한낱 하찮은 오랑캐로서 스스로 대단한 체 날뛰어 우리 변경을 침범하여 노략질하기도 하고, 혹은 물품을 바치며 화친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오늘날 북쪽 오랑캐의 모욕을 참는 것이 臥薪嘗膽하며 스스로를 격려하여 衰退를 부흥시키고 치욕을 씻는 것이 될뿐더러 어떤 난관이 있어도 중국 조정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을 후일에 드러낼 것입니다.”²⁸⁾라고 하였다.

이 記事에서 보면 당시 조선에서는 事大와 交隣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에 대한 事大외교는 더욱 굳건해지고 후금과는 交隣이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차 일어난 丙子胡亂 등 양대 호란은 임진왜란에 비해 기간도 짧았고 국토의 일부만이 전쟁터로 변하였기 때문에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은 왜란보다 적었지만,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영향은 왜란보다 훨씬 더 컸다. 왜란은 명의 援兵으로 주자학적 명분론을 강화시켜 주었지만, 禽獸와 같은 夷狄에 대해 稱臣과 事大를 강요당한 胡亂은

26) 정원호, 상기 논문.

27) 김성근, p.41.

28) 『仁祖實錄』 5년(1627) 4월 1일 6번째 記事.

주자학적 명분론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였다.²⁹⁾

이에 조선은 한때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깃뚫힌 문화국의 이미지를 되살리려 노력하는 한편 해마다 조공사신을 청에 보내 현상유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7세기 이래 조선과 청 양국 간의 외교는 전통적 조공책봉관계에 기초하여 수립 전개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은 1876년 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가 체결될 때까지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갔다.³⁰⁾

3. 외교현장에 활용된 『詩經』 양상

조선의 외교적 형태가 明에 대하여는 ‘事大’외교의 형태를 띠고, 野人·倭人에 대하여는 ‘交隣’외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가 있다. 이들에 대해 조선은 정벌과 회유 양면의 交隣策을 함께 사용하여 왔었다. 野人·倭人에 대해 문화적 우월감을 지니고 있는 조선정부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朝鮮王朝實錄』의 『詩經』을 중심으로 한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지난 번 줄고³¹⁾에서 조선과 중국 간에 외교적으로 전달된 문서상에 등장하는 『詩經』구절을 통해 중국은 조선에게 事大질서를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조선은 상황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음을 고찰한 바 있다. 아울러 문서 이외 양국 외교 관계자가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의 『詩經』활용의 모습을 통해 『詩經』이 양국의 외교석상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살펴본 바 있다.³²⁾

본고에서는 상기 두 가지 외교 경로 이외에 조선과 중국 간에 문화적 사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詩經』의 관련 구절까지 함께 포함하여 조선과 중국 간의 외교적 교류를 살펴보려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과 청에 서로 다른 외교적 태도를 보여준 조선인들의 모습에서 조선인들의 유교적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조선과 野人·倭人の 외교에 활용된 『詩經』

먼저 對野人 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世宗 15년³³⁾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이 올린 野人 평정을 하례하는 箋을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지난 임자년 12월에 파저강 야인들이 우리 北邊을 침략하므로 …… 군사를 몰고 가 그 죄를

29) 崔韶子(1976), 「胡亂과 朝鮮의 對明清關係에 대한 一考察-丙子胡亂時の 被虜人問題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Vol.71, pp.535-559. 김성근, p.58 재인용.

30) 김성근, pp.70-74 참조.

31) 정원호, 상기 논문.

32) 정원호, 상기 논문.

33) 『世宗實錄』 15년(1433) 5월 5일 1번째 記事.

물어 추악한 오랑캐를 다 평정하였사오매 …… 聖人の 덕이 실로 天心에 합하고, 仁義의 군사가 사나운 무리들을 평정하니 …… 그윽히 생각하건대 周雅의 『采薇』篇은 실로 獫狁이 있기 때문이며, 商書의 葛을 친 것도 또한 童子를 위한 정벌이옵니다. 백성이 힘들 수 있으나, 군사는 부득이한 일입니다. 무지한 이 흉한이 우리 변경에 이웃하여, 이리같은 탐하는 욕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개짓는 소리로 문밖에서 자주 찾아대어 …… (去壬子歲十二月, 婆猪江野人等寇我北鄙。 …… 行師問罪, 戎醜悉平, …… 聖人之德, 允合於天心; 仁義之師, 悉平其獷俗。 …… 竊以『周雅』『采薇』, 實是獫狁之故; 『商書』伐葛, 亦爲童子而征。 民可勞乎, 兵非不得已。 蠢茲兇類, 隣我邊城。 狼貪浸畜其內心, 犬吠頻狺於外戶。)

記事에 표현된 野人 측에 관련된 용어를 보면 ‘추악한 오랑캐’, ‘사나운 무리’, ‘흉한’, ‘이리’, ‘개짓는 소리’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에 반해 조선 측은 ‘聖人の 덕’, ‘仁義의 군사’로 표현되어 있다. 즉 조선과 야인을 확실하게 차별화하여 문명국인 조선에서 부득이하게 백성을 위하여 김승과 같은 野人을 평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采薇』편을 보면 “집이 없으니 힘든 때문이며, 편히 거처할 틈도 없으니 힘든 때문이라.”³⁴⁾라고 하였다. 아울러 毛氏序에는 “문왕 때 서쪽으로 昆夷의 근심이 있고, 북쪽으로 獫狁오랑캐의 난이 있어서 천자의 명으로 장수에게 명하여 수자리에 파견하여 중국을 지키게 하였다(文王之時 西有昆夷之患 北有獫狁之難 以天子之命 命將率 遣戍役 以守衛中國)”라고 하였다. 즉 조선 세종의 野人 평정을 유교의 聖王인 文王의 獫狁 평정과 같은 맥락에 두고 있다. 이는 『詩經』의 시편을 통해 북방의 野人들과는 차별화된 유교적 문명의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成宗 22년³⁵⁾ 弘文館 副提學 金克儉 등이 北征의 利害得失에 따른 계책을 올린 筭子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書經』에 ‘蠻夷가 중국을 어지럽힌다.’라고 하였고, 『詩經』에 ‘獫狁이 매우 성하다.’고 하였으니, 옛날부터 공통된 걱정거리였습니다. …… 지난봄에 북쪽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약탈하였으며, 지키던 장수를 죽이는 데 이르렀으니 …… 초겨울이 되기를 기다려 장차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 하시니 …… (『書』言“蠻夷猾夏。”『詩』稱“獫狁孔熾。”自古通患 …… 去春北虜犯邊, 殺掠人畜, 至殺守將 …… 俟冬初, 將興兵致討 ……)

記事에서 보면 野人은 조선의 강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成宗대에도 여전히 조선의 변방을 침범하여 근심 걱정을 안겨다주는 존재로 고전 經書에 나오는 오랑캐에 비유되고 있다. 인용된 시편은 「小雅·六月」편인데, 朱熹의 『詩集傳』에 보면 “겨울과 여름철에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는데 지금은 6월인데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獫狁오랑캐가 매우 극성하여 그 일이 위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왕이 이에 출정하여 왕국을 바로잡으라고 명하셨다.”이다.³⁶⁾ 북방의 거칠고 야만적인 野人세력들의 빈번한 越境 및 약탈 행위에 대해 조선정부의 정벌 논의에 대해 『詩經』의 시편을 통해 그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34) “靡室靡家, 獫狁之故. 不遑啓居, 獫狁之故.”

35) 『成宗實錄』 22년(1491) 4월 21일 5번째 記事.

36) 冬夏不興師 今乃六月而出師者 以獫狁甚熾 其事危急 故不得已而王命於是出征 以正王國也. 『詩集傳』, 卷十, p.114.

이 記事의 후반부에 보면 “대저 聖人이 夷狄의 침입을 모기나 등에 등이 쏘는 정도로 여겨서, 침입해오면 그들을 멀리 쫓아버리고, 물러가면 수비를 하여 병력을 소진시키면서까지 멀리 가서 토벌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랑캐에게 2만의 군사를 일으켜 ……”³⁷⁾라고 하면서 野人의 정벌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양상이 보인다. 즉 갈수록 커져만 가는 그들의 세력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면서도³⁸⁾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기’ ‘등에’ 등의 해충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成宗 22년³⁹⁾都元帥 許琮 등을 불러 북방 정벌의 舉事에 관한 의논을 하는 記事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지금 북방 정벌의 舉事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불가하다고 하면서 논의가 각각 다르니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 『詩經』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는가? ‘文武를 겸비한 吉甫는 온 나라에서 모범으로 삼고,⁴⁰⁾ 威名이 빛나는 南仲은 玁狁을 제거하도록다.⁴¹⁾’라고 하니, 이것은 오늘날 元帥의 임무이다.(今北征之舉, 人皆曰不可, 論議各異, 將何以處之? …… 『詩』不云乎。‘文武吉甫, 萬邦爲憲; 赫赫南仲, 玁狁于襄。’, 此今日元帥之任也。)

記事에서 보면 成宗은 정벌임무를 띤 장군에게 자신의 보검을 하사하면서 『詩經』의 두 시편에서 각기 관련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전자는 「小雅·六月」편으로 朱熹의 『詩集傳』에 보면 “周 왕실이 점점 쇠퇴해지고 八代에 厲王 胡가 포악해지자, 주나라 사람들이 그를 축출하고 虢 땅에 나가 거주하니 猷윤이 안으로 침입해 들어와 京邑 가까이 다다랐다. 厲王이 죽고 아들 宣王 靖이 즉위하자 尹吉甫에게 命하여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를 정벌하게 하여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周室寢衰 八世而厲王胡暴虐 周人逐之 出居于虢 玁狁來侵 逼近京邑 王崩 子宣王靖 卽位 命尹吉甫 帥師伐之 有功而歸。)”⁴²⁾라고 하였다. 후자는 「小雅·出車」편으로 周王이 당시 大將이던 南仲에게 命하여 猷윤을 제거하게 한 뒤, 장군의 개선을 위로한 詩이다.⁴³⁾ 두 편 모두 제거 대상은 당시 세력이 큰 북방 오랑캐인 猷윤이며, 임명한 장수는 모두 온 나라의 신임을 받던 인물로써 출정하여 공을 거두고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周나라 초기 왕의 教化를 크게 일으킨 宣王의 인용고사가 시편의 함축적 내용으로 成宗의 정벌 명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宣祖 33년⁴⁴⁾備邊司에서 胡人과 北道에 대한 慰撫策을 건의한 장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37) “夫聖人視夷狄之侵, 如蚊蠱之螫, 來則驅而遠之, 去則備而守之, 不窮兵不遠討。 今欲舉二萬之衆於虜 ……” 『成宗實錄』 상기 記事.

38) 『成宗實錄』에 보면 상기 記事보다 9일 지난 4월 30일에도 『詩經』의 같은 시편을 인용하며 그들을 정벌하러 그 地境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보인다. 『成宗實錄』 22년(1491) 4월 30일 6번째 記事 참조.

39) 『成宗實錄』 22년(1491) 5월 11일 1번째 記事.

40) 「小雅·六月」

41) 「小雅·出車」

42) 『詩集傳』, 卷十, p.114.

43) 『詩集傳』, 卷九, p.108. 참조.

44) 『宣祖實錄』 33년(1600) 12월 2일 6번째 記事.

북쪽 오랑캐가 혼단을 만들어 근심스러운 조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제때에 강구하여 상두의 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거듭 大兵을 일으켜 저들의 소굴을 뒤엎어버리면 당장에는 통쾌하겠지만 …… 북쪽 오랑캐는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을 몰라 오직 利만을 추구할 뿐이니, 이로움을 미끼로 기미할 수는 있어도 의리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北虜構釁, 憂虞萬端。不可不及時講究, 以爲桑土之計。若屢興大兵, 覆其巢穴, 則雖快於目前 …… 虜情無厭, 惟利是趨, 可以利餌, 難以義結。)

記事에서 보면 북방 野人이 벌이는 혼단의 조짐이 보통이 아님이 대해 조선 조정에서 매우 근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북방의 누르하치에 통합된 建州女眞은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을 때 이미 조선에 馬兵 삼 사만과 步兵 사 오만 정도의 용맹스러운 精兵을 파견해 줄 수 있다고 할 만큼 세력이 강성해져 있었다.⁴⁵⁾ 하지만 여전히 조선에서는 그들 野人에 대해 ‘利’만 추구할 뿐 ‘義’를 논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의 현실정치가 위급하더라도 野人과는 安寧을 위해 ‘交隣’ 관계를 유지할 뿐, 유교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과는 근본 속성이 다르다는 초지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野人과 관련된 내용 이외 다른 記事들도 野人을 바라보는 조선인들의 견해에는 시종 “人臣無外交”라는 표면적 이유로 ‘交隣’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그 내면에는 그들과는 차별화된 우월한 유교문명국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記事 이후 북방 野人세력은 1616년 ‘後金’이라는 국가기구를 세우고 ‘淸’으로 이어지는 데, 더 이상 野人과 『詩經』의 관련된 記事는 보이지 않는다. 상기 언급한 野人과 『詩經』의 관련된 記事 이외 『實錄』에 언급된 기록을 도표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實錄』에 기록된 野人과 관련하여 『詩經』이 언급된 기사

시기	관련 구절	『詩經』 작품명
세종 18년 윤6월 18일	“天子命我, 城彼朔方. 赫赫南仲”	「小雅·出車」
세종 29년 1월 25일	虎拜揚休, 恒祝岡陵之算。	「小雅·天保」
세조 13년 7월 24일	‘懷哉懷哉! 曷月予還歸哉?’	「王風·揚之水」
성종 17년 1월 16일	其可不汲汲措置以備陰雨之戒乎?	「豳風·鴝鵒」
성종 22년 2월 11일	保國可繫於苞桑, 備患孰侮於陰雨?	「豳風·鴝鵒」
성종 22년 4월 30일	『詩』云 玁狁孔熾 侵鎬及方,	「小雅·六月」
성종 22년 6월 14일	『詩』曰 “戎狄是膺, 荊、舒是懲。”	「魯頌·閟宮」
성종 22년 7월 4일	蠻荊爲讎周宣有采芑之師。	「小雅·采芑」
성종 22년 8월 24일	『易』著其事, 『詩』詠其功。	『詩經』
연산 2년 10월 24일	有桃蟲之虞 萌猾夏之階。	「周頌·小毖」

45) “奴兒哈赤部下, 原有馬兵三四萬, 步兵四五萬, 皆精勇慣戰。” 『宣祖實錄』 25년(1592) 9월 17일 4번째 記事.

연산 6년 1월 22일	『詩』云 “時純熙矣 是用大介。”	「周頌酌」
중종 7년 5월 24일	『詩』曰 “猷之未遠 是用大諫。”	「大雅板」
중종12년 8월 3일	「東山」言其戍卒之苦 甚備。	「豳風東山」

다음으로 조선과 倭人의 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成宗 17년⁴⁶⁾江陵大都護府使 曹淑沂가 성곽의 수·개축에 대해 올린 上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섬 오랑캐와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말갈에 접하여 배와 등으로 적을 맞으니, 强暴한 것을 막고 백성을 보전하는 바에 급급히 조치하여 ‘陰雨의 경계에 대비’⁴⁷⁾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더구나 南方은 태평한 시일이 오래 되고 산꼭대기 물가에 민가가 두루 퍼져 있으니, 졸지에 倭變이 나면 비록 城堡에 들어가고자 하여도 성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백성이 어디를 믿고 도적의 칼날을 피하겠습니까? 『詩經』에 이르기를, ‘엄정하고도 바른 謝邑의 일을 召伯이 다스리도다.’⁴⁸⁾라고 하였습니다.(我國南隣島夷, 北接靺鞨, 腹背受敵, 禦暴保民之所, 其可不汲汲措置以備陰雨之戒乎? …… 況南方昇平日久, 山巔水涯, 民居遍焉, 卒有倭變, 則雖欲疊入, 城不容焉, 民安所恃而避其賊鋒乎? 『詩』云: ‘肅肅謝功, 召伯營之。’)

記事에서 보면 당시 나라의 형세가 남북으로 强暴한 오랑캐들과 접하고 있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미리 닦쳐올지도 모를 위협에 대비하자고 하면서 관련된 『詩經』의 시편을 인용하였다. 관련 구절은 「豳風·鴟鴞」편으로 朱熹의 『詩集傳』에 보면 “또한 새의 말을 하되 내가 하늘이 陰雨를 내리지 않을 때 가서 뽕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등지의 틈새를 촘촘하게 감아서 견고하게 하여 陰雨의 근심을 대비한다면 아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길 자 있겠는가? 또한 이로써 스스로 왕실을 깊이 사랑하여 그 환난을 미리 방지하고 하는 뜻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孔子가 이를 찬미하여 이르기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그 道를 알 것이다. 능히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라고 하였다.”⁴⁹⁾ 시편의 내용은 새를 주제로 하여 인간의 세상을 비유한 것이다.

관련 구절은 朱熹가 공자의 作詩者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어놓아 그 위엄을 한층 높여놓았다. 이는 주자학적 유교관념을 정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이기에 남북의 오랑캐의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그들에 비해 문화적 우월감에 찬 시편 인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中宗 4년⁵⁰⁾倭奴 문제를 걱정하며 대비책을 제시하는 상소에 실린 記事의 후반부에, 倭人들의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군기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詩經』의 “(아! 아름다운

46) 『成宗實錄』 17년(1486) 1월 16일 2번째 記事.

47) 「豳風·鴟鴞」

48) 「小雅·黍苗」

49) “亦爲鳥言 我及天未陰雨之時 而往取桑根 以纏綿巢之隙穴 使之堅固 以備陰雨之患 則此下土之民 誰敢有侮予者 亦以備已深愛王室而豫防其患難之意 故孔子讚美曰 爲此詩者 其知道乎 能治其國家 誰敢侮之.” 『詩集傳』, 卷八, p.94.

50) 『中宗實錄』 4년(1509) 3월 24일 2번째 記事.

왕의 군대여) 道를 따라 힘을 기르다가 때로는 숨어서 덕을 기르는구나(於鑠王師)遵養時晦⁵¹⁾라는 시구를 인용하였다. 이는 朱熹의 『詩集傳』을 참고해보면 왕의 성대한 군사를 평시에는 힘을 잘 길러두며 감추어 두었다가 때가 이르러서야 크게 사용하여 천하를 평정한 武王을 송축한 詩라고 하였다. 즉 왜구에 대비한 조선의 용병에 대해 武王의 예를 제시하면서 시편을 활용하였다.

明宗 즉위년⁵²⁾李滉이 일본과의 강화와 병란에 대비할 것 등에 대해 올린 上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신은 생각하건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에 夷狄은 禽獸라고 합니다. 夷狄도 또한 사람이지만 이를 禽獸에 비유하는 것이 진실로 심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의를 몰라서 군신 상하의 분별이 없고 그 삶이 어리석기 짝이 없으며 완악하고 지각이 없어 거의 금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유사한 것을 취하여 함께 일컬은 것입니다. 따라서 금수를 금수로 기르면 만물이 그 본성대로 되는 것이고 이적을 이적으로 대하면 이적이 그 분수에 편안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王者는 이적을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 獬豸가 내지로 침입하여 京邑까지 뽴근해 왔었으니 그 반역이 이미 컸습니다. …… 그러므로 예부터 제왕들이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은 화친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臣伏以人有恒言, 皆曰夷狄禽獸。 夫夷狄亦人耳, 乃比於禽獸者, 非固甚言之也。 爲其不知禮義, 無君臣上下之分, 而其生也蚩蚩蠢蠢, 冥頑不靈, 殆與禽獸無異, 故取類而竝稱之爾。 故以禽獸畜禽獸, 則物得其性, 以夷狄待夷狄, 則夷安其分。 故王者不治夷狄 …… 獬豸內侵, 逼近京邑, 逆已大矣。 …… 故自古帝王禦戎之道, 以和爲先。)

記事에서 보면 李滉은 왜인을 포함한 夷狄에 대해 비록 사람이지만 禽獸에 비유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를 몰라서 군신 상하의 분별이 없다’라고 하였다. 주자의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조선이 交隣를 맺고 있는 주변국과의 유교의 문화적 수준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들을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사물이 본성대로 자라듯이 夷狄은 夷狄답게 대우해주어야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記事의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李滉은 금수를 예악으로 바로 잡으려하다가는 도리어 성질을 거슬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면서 그들이 복종해오면 받아주고 침탈해오면 내쫓으면 된다고 하면서 관련 『詩經』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여기서 인용한 『詩經』은 시편의 구절이 아니라, 상술한 成宗2년 野人과 관련된 記事에서 언급한 「小雅·六月」편을 해설한 朱熹 『詩集傳』의 내용이다.

宣祖 21년⁵³⁾李命生이 일본의 위협에 대해 올린 上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듣자오니 (일본은) 그 군주가 폐위되어 재변이 비상한데, 지금 그들의 사신을 접견하여 우리의 예의있는 君臣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를 다루던 虞·芮의 군주가 감히 文王의 조정에 들어서지 못하였는데,⁵⁴⁾ 주인을 폐위시킨 倭奴가 우리 전하의 賓을 접대하는 자리를 욕되게 한다면 장차 무엇으로써 서로 보고 느끼어 장래의 勸戒로 삼겠습니까. 또한 歲遣例를 평계로 틔음

51) 「周頌·酌」

52) 『明宗實錄』 즉위년(1545) 7월 27일 3번째 記事.

53) 『宣祖實錄』 21년(1588) 1월 3일 2번째 記事.

54) 「大雅·緜」의 朱熹 『詩集傳』 내용.

보아 흉계를 도모하려는 술책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의 짐승과 같은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려우니 장차 다가올 근심을 …… (聞其主見廢, 變異非常, 今之來使, 其可接待, 侮辱我禮義之君臣耶? 爭田之虞芮, 不敢履文王之庭, 廢主之倭奴, 忝辱我殿下之賓筵, 將何以觀感彼此, 有所勸戒於後來耶? 安知托名歲遺之例, 爲觀釁逞凶之術耶? 獸心難測, 將來之患 ……)

記事에서 보면 정변을 겪은 일본사신을 접견하는 것은 조선의 예의있는 군신을 욕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詩經』의 관련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 또한 상술한 記事처럼 시편의 원 구절⁵⁵⁾이 아니라 朱熹 『詩集傳』의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면 “虞·芮의 두 군주가 서로 토지를 가지고 다투어오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자 함께 周나라에 조회하려고 그 국경을 들어갔는데, 밭가는 자들은 밭두둑을 양보하고 그 읍에 들어가 보니 남녀가 길을 달리하며 반백이 된 사람이 농기구를 들고 끌지 아니하며, 그 조정에 들어가 보니 土는 大夫되기를 사양하고 大夫는 卿이 되기를 사양하였다. 두 나라 임금이 감동하여 서로 이끄기를 ‘우리들은 小人이니 君子의 영토를 밟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곧 서로 사양하여 다투던 토지를 목정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물러갔다.”⁵⁶⁾라고 하였다. 이는 周代 聖君이 다스리던 가장 이상적인 유교국가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즉 상하 군신간의 질서가 없는 소인배 나라의 일본 신하를 유교의 문명국가인 조선의 조정에 밭을 들어놓게 할 수 없다는 논지를 典故가 함축되어있는 朱熹의 『詩集傳』에 있는 몇 글자로 대체시켜놓은 것이다.

상기 언급한 倭人과 관련된 『詩經』 記事 이외 『實錄』에 언급된 시편 제목과 관련 구절에 관한 기록을 도표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實錄』에 기록된 倭人과 관련하여『詩經』이 언급된 기사

시기	관련 구절	『詩經』작품명
성종 4년 8월 9일	感『相鼠』之篇, ‘無禮遄死’之義。	「鄘風·相鼠」
중종 5년 4월 19일	克壯其猷, 佇見方叔之執獲。	「小雅·采芣」
중종 5년 5월 28일	敘情遣戍, 合周王之『采薇』。	「小雅·采薇」
중종 7년 5월 24일	『書』曰“遠乃猷。”『詩』曰“猷之未遠, 是用大諫。”	「大雅·板」
중종 39년 4월 24일	『詩』云: ‘正月繁霜, 我心憂傷。’	「小雅·正月」
중종 39년 5월 5일	『詩』云: ‘謀臧不用, 不臧復用。’	「小雅·小旻」
선조 26년 5월 25일	如周宣王之側身修行, 越句踐之臥薪嘗膽。	「大雅·雲漢」
선조 26년 11월 12일	『詩』云 ‘戎狄是膺。’ 伐叛誅暴, 帝王盛典。	「魯頌·閟宮」
선조 26년 11월 14일	『詩』云: ‘戎狄是膺。’ 伐叛誅暴, 帝王盛典。	「魯頌·閟宮」
선조 27년 7월 17일	昔, 有張仲孝友, 宗澤有李綱, 然後能有爲。	「小雅·六月」

55) “虞나라와 芮나라가 분쟁을 가리려고 오거늘, 문왕이 그 흥기한 바를 바꾸시니.(虞芮質厥成, 文王蹶厥生.)” 「大雅·緜」

56) “傳曰 虞芮之君 相與爭田 久而不平 乃相與朝周 入其境 則耕者讓畔 行者讓路 入其邑 男女異路 斑白者不提挈 入其朝 土讓爲大夫 大夫讓爲卿 二國之君 感而相謂曰 我等小人 不可以履君子之境 乃相讓以其所爭田 爲閒田而退。” 『詩集傳』, 卷十六, p.181.

선조 27년 10월 17일	而『千旄』、『相鼠』, 有好賢嫉惡之心,	「鄘風·千旄」 「鄘風·相鼠」
선조 39년 10월 25일	『詩』之贊文王曰“是致、是附, 四方無侮。”	「大雅·皇矣」

2) 조선과 明·淸의 외교에 활용된 『詩經』

조선과 중국의 외교와 관련된 『詩經』의 시편들에 대해서는 줄고에서 고찰한 바가 있다.⁵⁷⁾ 明에 대해서는 문화적 자부심을 유지하면서도 上國의 문명을 수용하는 국가로서의 진지하면서도 내면으로 섬기는 태도를, 淸에 대해서는 무력에 의한 섬김과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으로 의례적이고도 형식적으로만 섬기려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⁵⁸⁾

端宗 즉위년⁵⁹⁾ 중국의 사신들이 明倫堂에 나가서 成均館 秀才들과 四書五經 등의 경전에 대해 강론하는 자리에서 조선의 성균관에 공부하는 書生이 삼백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 중국의 國子監에는 칠 팔천명 정도 되며, 또 조선에서는 科擧 본 문장을 반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중국의 조정에서는 高第의 문장을 모두 인쇄하여 반포한다고 한 내용이 있다.⁶⁰⁾ 즉 조선은 明과의 교류에서는 외교상의 의례적 행위 이외에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유교문명의 규모와 내실을 본받고 이를 조선의 유교주의 문명으로 발전시키려 힘써 왔다.

明 왕조가 淸 왕조로 교체되었을 때 조선은 淸의 무력에 굴복하였지만, 明代까지 이어져 내려온 孔子의 유교문명을 조선만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줄곧 이어져 왔다.

英祖 19년⁶¹⁾ 正言 趙重晦의 上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 국가에서 皮幣와 珠玉으로 [淸나라를] 섬겨온 지 이에 백 년이 되었습니다. …… 돌아보건대 오늘날 천하에 관모와 띠를 두른 예의바른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저들이 四海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어찌 다만 偏邦인 조선에 그들의 풍속을 따르게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다름 아니라, 조정의 신하와 재야의 선비 가운데 忠臣·義士가 왕왕 나타나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世敎가 여지없이 허물어졌으니,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삼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예의의 나라가 장차 모두 오랑캐의 지경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噫! 國家皮幣、珠玉之事, 百年于茲。 …… 而顧今天下冠帶之國, 惟我東一隅。 彼以席捲四海之力, 顧何有於此偏邦, 而獨不能使行其俗者? 此無他, 朝紳、韋布之間, 忠肝、義膽往往發見, 有足以畏服其心耳。 今之世敎敦敗無餘, 由茲以往, 三百年禮義之邦, 其將盡入於被髮左衽之域。)

記事에서 보여주듯이 조선은 淸에 대해서 ‘皮幣와 珠玉’ 등의 물질적 事大를 해왔었을 뿐이다. 淸이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도 풍속 교화까지 강요하지 못한 것은 조선의 찬연한

57) 정원호, 박사논문.

정원호, 「조선시대 對淸국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과 고찰」

58) 정원호, 「조선시대 對淸국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과 고찰」, p.160 참조.

59) 『端宗實錄』 즉위년(1452) 8월 23일 3번째 記事.

60) 상기 記事 참조.

61) 『英祖實錄』 19년(1743) 11월 28일 3번째 記事.

유교적 정신문화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明이 사라져버린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하에서 ‘관모와 띠를 두른 예의바른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이라는 우월한 문화적 자부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정신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조선의 군신들은 조선의 역사가 다하도록 그들에게 유교적 문명을 전파시켜주고 임란 때 나라도 구해준 明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 힘썼던 것이다.

『詩經』의 「檜風·匪風」, 「曹風·下泉」 두 시편은 “쇠퇴해가는 周王室을 걱정하고 탄식하며 그 그리움을 나타낸”⁶²⁾ 시이다. 조선에서는 明과 관련된 각종 器物이나 기념일 등을 만나면 매번 이 두 시편으로 감회에 젖어들고는 하였다. 지난번 졸고⁶³⁾에서 이와 관련된 『實錄』의 주요 記事 몇 편을 언급한 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이 明 이후 淸과의 외교를 하면서도 정신적 외교는 철저하게 明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이 두 시편에 관련된 전제 『實錄』의 記事를 다음의 도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3> 明이후 「匪風」, 「下泉」이 언급된 『實錄』 관련 記事

조선	중국(淸)	관련 내용
숙종 37년 1월 3일	康熙 50년	星州·安東 兩邑의 關王廟 享祀
영조 5년 4월 30일	雍正 7년	尹淳이 淸에 사신으로 가서 글씨 남긴 행위 비판
영조 5년 11월 2일	雍正 7년	尹淳이 淸에 사신으로 가서 글씨 남긴 행위 비판
영조 10년 6월 21일	雍正 12년	趙憲이 明의 조정에 조회할 때 쓴 『朝天錄』 간행
영조 17년 4월 4일	乾隆 6년	明 조정의 玉璽가 찍힌 책들을 모아다간직하도록 命함
영조 19년 11월 28일	乾隆 8년	瀋陽에 使行다녀온 問安使들의 행동거지 비판
영조 23년 1월 26일	乾隆 12년	慶尙右兵營에서 바친 옛날 도장에 새겨진 萬曆의 年號를 보고 감탄
영조 23년 11월 4일	乾隆 12년	冬至使 세 사신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감회에 젖음
영조 25년 4월 10일	乾隆 14년	大報壇에서 祭를 지내면서 明 神宗과 毅宗의 再造之恩에 감사
영조 26년 3월 5일	乾隆 15년	大報壇에서 望拜를 올림
영조 27년 10월 8일	乾隆 16년	宮門 밖에 사는 明의 遺民들을 召見하며 追慕의 감회
영조 28년 2월 16일	乾隆 17년	尊號를 정할 것을 주청하면서 英祖의 大報壇 계단 증축 등을 賀禮
영조 31년 12월 3일	乾隆 20년	明나라 遺民의 자손을 불러 보면서 감회에 젖음
영조 32년 2월 24일	乾隆 21년	明 皇朝에서 恩賜한 御製·御筆·寶章·御書·櫃 등에 친히 小識를 지음
영조 37년 5월 10일	乾隆 26년	皇壇에서 望拜禮를 행하고 漢村의 漢人들에게 음식을 지급

62) 『詩集傳』, 卷7, p.86, p.89. 참조

63) 정원호, 박사논문.

영조 40년 1월 22일	乾隆 29년	孝宗 때 宋時烈에게 하사한 貂裘를 친견하면서 감회에 젖음
영조 41년 2월 21일	乾隆 30년	隆武堂에서 『心經』을 강하면서 孝宗의 北伐을 떠올림
영조 43년 7월 21일	乾隆 32년	明 神宗皇帝의 忌辰일을 맞이함
영조 46년 3월 5일	乾隆 35년	延和門에 나아가 皇壇에 쓸 향을 祗迎함
영조 46년 7월 21일	乾隆 35년	漢人の 자손을 德游堂에서 召見하고 쌀과 배를 하사함
영조 47년 7월 9일	乾隆 36년	明 提督 李如松의 후손을 등용시킴
영조 48년 3월 3일	乾隆 37년	香祗迎禮를 행하고 皇壇을 奉審
영조 49년 3월 6일	乾隆 38년	延和門에 나아가 皇壇에 쓸 향을 祗迎하고 漢人の 자손들을 召見
영조 50년 3월 21일	乾隆 39년	敬奉閣에 나아가 참배 후 明의 皇朝人의 자손을 入侍케 함
정조 즉위년 3월 18일	乾隆 41년	大報壇의 時享 정지하게 함
정조 8년 7월 21일	乾隆 49년	北苑에 나아가서 望拜禮를 행함
정조 11년 3월 19일	乾隆 52년	尙瑞院에 있는 明에서 하사한 馬牌를 宣覽함
정조 12년 7월 19일	乾隆 53년	明 神宗皇帝 昇遐일에 明에 대한 望拜禮거행
정조 17년 7월 21일	乾隆 58년	明 神宗皇帝의 忌辰일을 맞이하여 再造之恩에 감사
정조 19년 3월 6일	乾隆 60년	皇壇의 望拜禮에 불참한 儒生·武人·朝官 등을 治罪하라고 命함
정조 22년 3월 19일	嘉慶 3년	大報壇에 나아가 禮를 행하고 忠良家의 자손들을 접견함
순조 24년 3월 18일	道光 4년	明 毅宗이 자결한 甲申年이 돌아와 致祭하도록 命함
고종 20년 3월 2일	光緒 9년	皇壇에 제사를 지내고 明나라 자손들을 登用하도록 命함
고종 21년 1월 20일	光緒 10년	皇壇에 致祭하는 일에 관해 命함

상기 도표에서 보면 특이할 만한 것은 明과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영조 5년의 두 記事에서 보듯이 조선의 使行 중에 淸의 조정과 친근한 행위만 보여도 오랑캐의 나라에 문명국의 사신이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이 두 시편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이는 상술한 것처럼 淸의 前身이 북방 野人 즉 한 동안 조선의 藩邦으로 있으면서 물질적 정신적 보살핌을 받았던 나라인 동시에 조선이 갖가지 수식어로 경멸해오던 오랑캐의 야만적 부족이었다는 관념이 조선으로 하여금 더욱더 ‘小中華’의 문명적 자부심에 살게 만들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4. 나오며

이상에서 조선시대 외교현장의 『詩經』 활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조선의 외교정책은 일반적으로 ‘事大交隣’이라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해서는 ‘事大’로, 기타 주변국에 대해서는 ‘交隣’ 정책을 펼쳐나갔다. 본고에서는 기존 역사·정치 분야 등 관련 학계의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詩經』의 외교적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이 중국의 유교문명권에 접근해 있는 ‘小中華’로서의 문명적 자부심을 『詩經』등의 고전 경서를 통해 어떠한 이미지로 간직하고 있었는지 살피고자 하는 것을 본고의 연구과제로 삼았다.

제 2장에서는 조선시대의 외교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과 북방 野人이었던 ‘女眞’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女眞은 조선 초기 국가 단위를 형성하지 못하고 경제와 문화적인 면에서 명과 조선에 비해 매우 열세에 놓여 있었다. 조선은 여진에게 강온정책을 병행하며 외형상으로는 交隣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조선은 女眞 등의 제 부족에게 정벌 전쟁을 벌이며 그들을 우호 교린의 선상에 두기보다는 조선을 上國으로 섬기고 복종하며 살기를 강요하는 외교적 방향을 유지하였다. 그들과의 이러한 관계는 누르하치가 요동반도를 장악하여 後金이라는 나라를 건설할 때까지 이어졌다. 조선과 왜인과의 交隣외교 분야에서는 野人과 마찬가지로 강온정책을 병행하였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부정적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조선의 野人和 倭人の 외교관계는 상호 물질적인 국력 차이와 문화적 수준의 월등한 격차로 인해 수평적 交隣외교보다는 종속적 외교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과 明·淸의 관계에서는 女眞이 後金으로, 淸으로 변해가는 과도기 조선에서는 광해군 시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실리외교를 펼치기도 하였지만, 이후 淸의 국력 앞에 과거 淸의 野人시절 上國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조선이 그들의 藩邦이 되어 事大외교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변모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조선 후기까지 줄곧 이어졌다.

제 3장에서는 외교현장에 활용된 『詩經』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과 野人の 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에 대해 世宗 과 成宗시기 野人 평정과 관련된 『實錄』의 記事를 통해 조선이 野人에 대해 ‘추악한 오랑캐’, ‘이리’, ‘개짓는 소리’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의 백성을 위한 정벌 전쟁의 명분으로는 주로 고대 중국 聖君의 정벌전쟁과 관련된 『詩經』의 시편을 통해 북방의 野人들과는 차별화된 유교적 문명의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成宗대를 지나 宣祖 대에 이르러 북방의 누르하치에 통합된 建州女眞의 세력이 급성장해 갈 무렵에도 이어져, 그들에 대해 ‘利’만 추구하는 소인배의 무리들일 뿐 ‘義’를 논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현 실정이 위급하더라도 野人과는 安寧을 위해 ‘交隣’ 관계를 유지할 뿐 유교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과는 근본 속성이 다르다는 초지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과 倭人の 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을 보면, 成宗 시기 强暴한 오랑캐에 대비하기 위해 孔子의 견해가 들어있는 朱熹의 주석과 관련된 시편 구절을 인용하고, 中宗代에는 천하를 평정한 고대 武王을 송축한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조선의 주자학적 유교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明宗代에는 그들에 대해 ‘예의를 모르고 군신 상하의 분별이 없는’ 금수와 다름없는 夷狄이라고 하면서 정벌 전쟁과 관련된 시편을 인용하였고, 宣祖代에는 周代 聖君이 다스리던 가장 이상적인 유교국가의 상징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는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주자의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조선이 交隣를 맺고 있는 주변국과는 달리 우월한 유교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과 明·淸의 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선은 明과의 교류에서는 외교상의 의례적 행위 이외에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유교문명의 규모와 내실을 본받고 이를 조선의 유교주의 문명으로 발전시키려 힘써 온 반면에 淸에 대해서는 무력에 굴복하였지만, 孔子의 유교문명을 조선만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줄곧 이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英·正祖를 지나 高宗代까지 줄곧 周王室을 걱정하고 탄식하며 그 그리움을 나타낸 「匪風」·「下泉」 두 시편을 통해 明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임란 때 나라를 구해준 ‘再造之恩’ 뿐만 아니라 孔子의 유교문명이 宋대의 朱熹를 거쳐 조선에서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꽃 피우고 있다는 문명적 자부심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히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참고문헌】

- 朱熹, 『詩集傳』, 臺北:中華書局, 民國71(1982)
- 김경록(2006), 「조선시대 事大文書の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Vol.134
- 김보한(2014),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13~15세기 금구(禁寇)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Vol.47
- 김성근(2008), 「朝·淸 외교관계 변화연구 : 朝貢·冊封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민정(2010), 「제4장 조선 전기 對日 交隣體制」, 『민족사상』 Vol.4
- 전해중(1996), 「韓中朝貢關係考」, 『東洋史學研究』 제1집
- 정다함(2011), 「‘事大’와 ‘交隣’과 ‘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韓國史學報』 Vol.42
- 정다함(2010), 「조선의 “조공국” 만들기 : 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 중심의 동북아 질서의 사이에서」,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5
- 정원호(2013), 「『朝鮮王朝實錄』의 『詩經』活用例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 정원호(2014), 「조선시대 對중국 외교에 활용된 『詩經』의 역할 고찰」, 『中文學』 제49집
- 崔韶子(1975), 「胡亂과 朝鮮의 對明·淸關係의 變遷: 事大·交隣의 問題를 中心으로」, 『梨大史苑』 Vol.12
- 崔韶子(1976), 「胡亂과 朝鮮의 對明清關係에 대한 一考察-丙子胡亂時の 被虜人問題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Vol.7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한글	시경, 조선, 야인, 일본, 명, 청, 외교
	영문	Shijing, the Joseon Dynasty, Jurchen, Japan, the Ming and the Qing Dynasty, diplomacy
<p style="text-align: center;">A study on the role of <i>Shijing</i>(詩經) in Joseon Dynasty Diplomacy</p> <p style="text-align: right;">Jung, Won-Ho</p> <p>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oles of Shijing in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Section 1 of Chapter 2 examines the good-neighbor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implemented throughout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Jurchen and Japan. Section 2 investigates the trends of submissive diplomacy practiced by the Joseon Dynasty and deeply rooted in its relations with the Ming and the Qing Dynasty. Section 1 of Chapter 3 analyzes the roles of Shijing applied to the good-neighbor policy toward Jurchen and Japan from the Confucian perspective. Section 2 of Chapter 3 looks into the roles of Shijing throughout the trends of submissi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Ming and the Qing Dynasty.</p> <p>The study learned that the good-neighbor policy towards Jurchen and Japan implied confidence of the Joseon Dynasty being a far more superior Confucian civilization to those two nations. The submissi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Ming and the Qing mostly confirmed that the Joseon Dynasty was inclined to accept the environment where distinct discrepancy in national power and culture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those two nations was evident.</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정원호 / 鄭元皓 / Jung, Won-Ho
	소 속	동의과학대학교 관광중국어전공
	Em@il	whjung@dit.ac.kr
	주 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5년 4월 30일
	심 사 일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2일